

NEWS

일본 동경 사회복지법인 성모회 동경성모병원 견학단 방문

일본 동경 사회복지법인 성모회(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도회) 동경성모병원 이사장(가자마 마사코)와 3명이 7월 24일 한국가톨릭의료협회를 방문하였으며 이어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을 방문하였고, 다음날인 25일에 대구파티마병원을 방문하여 호스피스병동, 내과병동, 산부인과병동을 둘러본 후, 4층 회의실에서 소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모회'의 이번 방문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산하 병원의 의료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등을 견학하여 일본 성모회의 이념과 역할에 접목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외의료선교 기금 마련 1일장

2007 해외의료선교 기금 마련 1일장이 7월~8월에 걸쳐 가톨릭의료협회 회원병원(CMC 직할) 4군데에서 개최되었다.

(주)잠뱅이(사장:안재영 수산나)에서 기증받은 약 4,000여벌의 면바지와 치마류를 해외의료선교단의 몽골 봉사 방문에 앞서 기금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7월 18일 강남성모병원 600여벌, 7월 19~20일 의정부성모병원 500여벌, 8월 22일 성가병원 350여벌, 8월 29일 성모병원 500여벌의 옷이 장당 10,000원에 판매되었으며, 회원병원의 열성적인 협조와 선교단원, 자원봉사자들의 밝은 웃음,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 '2007 해외의료선교 기금 마련 1일장'으로 의료선교봉사의 사랑의 참뜻을 알리는 소중한 뜻 깊은 자리였다. 8월 28일 2007 해외의료선교 발대식을 시작으로 8월 31일 선발대 출발, 9월 3일 본진이 출발하여 10일간 몽골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다.



제20주년 기념 한·일운영위원회 후쿠오카에서 개최

한국가톨릭의료협회와 일본 '성마리아병원 그룹'이 매년 양국을 오가며 정기 개최하는 한·일가톨릭의료사업 교류위원회가 지난 10월 17일에서 20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렸다. 한일교류 20주년을 맞이하여 성대하게 이루어진 이 행사에 한국측은 최영식 신부(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를 포함하여 박장상 교수(부회장), 남궁성은 교수(이사), 박호란 교수(이사), 정수교 교수(사무총장) 등 7명의 한국측 대표가 참석했고, 특히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초대 회장인 김대균 신부와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윤경철 신부,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인 조규상 교수가 특별 초청되었다.

행사는 성마리아병원 '눈의성모 성당'에서 제20주년 기념미사와 기념식수, 기념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측은 성마리아병원 이데 요시오 이사장 외 관계 임원 13명이 참석해 양측 간의 현안 의제 및 인간생명 존중의 가톨릭이념 실천을 위한 의료 활동 즉, 호스피스 관련 공동연구, 해외의료선교 공동참여 등 기존의 한일교류사업인 연수, 파견, 교육에 양국이 공동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 한국측은 해외의료선교사업 및 생명윤리교육과정과 정보화에 관한 내용 등을 발표 하였으며, 일본측은 한국의 IT 기술과 생명윤리대학원 과정에 관심을 보였고 양국의 회보 교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정보화에 관련하여 금년 중 이사진과 의료진이 방한하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견학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0년을 이어 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제1대 이치로 이사장과 제2대 이치로 미찌오 이사장을 기억하고 미사를 드렸으며 양국의 발전과 우정 깊은 교류를 다짐하였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2008년 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